

영화 '입을 위한 행진곡' 화순 군민회관 오디션 현장



지난 23일 화순군민회관에서 열린 영화 '입을 위한 행진곡' 오디션 현장에는 5세부터 60세까지 시민 250여명이 몰렸다.

“5·18 영화에 꼭 출연하고 싶어요” 5세~60대 참여자 250여명 몰려

지난 23일 화순 군민회관에서 열린 영화 '입을 위한 행진곡' 오디션 현장에는 열기로 가득했다. 이날 오디션 참가 인원은 250여명에 달했다. 지원자 숫자가 제작자 예측을 넘어서 부랴부랴 군민회관을 섭외하고, 박기복 감독 등 심사위원들이 두 팀으로 나눠 오디션을 진행했다.

(주)무당벌레 필름이 제작하는 '입을 위한 행진곡'은 오월 광주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엄마와 개그맨이 된 딸의 화해를 그린 영화다. 인천에 살고 있는 김중대씨는 79학번이다. 1980년 광주 항쟁 당시 대학생이었던 그는 서울에서 데모에 참여했다. 그에게 '오월 광주'는 항상 마음에 부담으로 남아 있었다.

사실감 있는 연기로 심사위원들의 눈길을 끈 그가 오디션에서 선보인 장면은 삼청교육대 시단의 의무대 근무 당시 겪었던 일이었다. "광주 5·18과 관련된 영화가 만들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꼭 참여해 보고 싶었다. 인천에서 왔는데 작은 역할이라도 맡을 수 있으면 좋겠다."

소설가 이원화씨의 모습도 보였다. 오디션에서 뽑을 캐릭터를 연구, 아예 환자복 차림으로 오디션에 참가한 그녀는 "우연한 기회에 미리 시나리오를 봤는데 광주를 다른 영화라 꼭 참여하고 싶었다"고 했다.

이날 오디션 현장에는 최연소 참가자인 5세 아이들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했다. 모두 750여명이 응시했고 서류 심사를 통해 250여명 정도를 추렸다. 영화 속에서 중요 역할을 하게 될 '부산 청년' 역할에 주목한 20대 젊은 청년들이 특히 많이 눈에 띄었다.

'입을 위한 행진곡'은 박기복 감독이 메가폰을 잡는다. 화순 출신으로 광주 진흥고, 서울



'입을 위한 행진곡'에 주인공으로 캐스팅된 이하나씨의 지난 5월 금남로 촬영 장면.

박기복 감독 등 심사위원들

두 팀으로 나눠 오디션 진행

8월말 화순 오거리서 크랭크인

스토리 편딩·북콘서트 등 진행

예대를 졸업한 그는 시나리오 작가 출신이다. 한일공동영화 '피고말리온의 사랑', 영화 '강아지 죽는다'의 시나리오를 썼고 이번 작품도 직접 집필했다. 이번 영화는 1995년 영화진흥공사 시나리오 공모에서 당선된 '운수가 산다'가 그 모태라 할 수 있다.

영화는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발포로 머리에 총알이 박힌 채 현재까지 살아가고 있는 엄마와 당시 유부자로 태어나 국민 개그우먼이 된 딸의 갈등과 화해를 그린 다. 박 감독은 영화적 상상력을 동원해 1979년 부마항쟁과 80년 5·18의 연결고리도 구성중이다.

크랭크인은 8월말로 예상하고 있다. 화순

오거리에서 크레인 군중신을 찍은 후 광주와 화순 일원에서 촬영할 계획이다. 화순은 거리·병원·역전·밥집 등 풍경이 80년대 분위기와 비슷한데다 광주와 연결 통로였던 너릿재, 시민군이 무장을 했던 화순경찰서 무기고 등 관련 장소도 많아 촬영에 적합한 장소다. (주)무당벌레와 화순군은 원활한 촬영을 위해 업무협약도 가졌다.

"오월 광주 영화를 만드는 게 부담이 없다면 거짓말이다. 무거운 소재이지만 재미있게, 유쾌하고 발랄하게 풀어내 보려 한다. 무거운 건 가볍게, 가벼운 건 무겁게 풀어내는 게 기본이다. 무엇보다 다양한 캐릭터들이 화면에 등장하도록 계획이다."

이번 오디션으로 뽑을 배역은 개그우먼 지망 여고생, 부산 출신 20대 형제, 국립집 단골 손님, 계엄군과 시민군 등 조·단역·엑스트라 100여명이다. 주연인 모녀 역에 설치운·이하나씨를 캐스팅했으며 이하나씨도 출연할 예정이다.

"여고생 '소미' 캐릭터는 '국악 소녀' 이미지인데 남도가 소리 고장이니 우리 지역에서 꼭 뽑고 싶다. 또 작품에서 중요 역할을 하게 될 부산 청년도 우리 지역 출신을 캐스팅하고 싶다. 영화에서 쓰일 '입을 위한 행진곡' 노래도 현대적으로 편곡해 색다른 느낌을 주고 싶다."

이번 영화의 제작비는 약 15억원 정도다. 제작사측이 담당하는 기본 제작비 이외에 시민 참여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조만간 '스토리 편딩'을 진행할 계획이며 광주와 영남 지역 예술인들이 모금을 위한 북콘서트 등도 연다. 문의 061-373-037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연극 '날개', 국악콘서트 '다담' ...

내일 '문화가 있는 날' 행사 풍성

아시아아트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

27일은 매달 마지막주 수요일마다 찾아오는 '문화가 있는 날'이다. 폭죽 쬐는 무드위를 잊게 해주는 공연·전시 등 각종 문화행사가 펼쳐진다. 광주문화재단은 오후 7시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극단 얼·아리'를 초청해 연극 '날개'를 선보인다. 소설가 이상의 작품 '날개'를 원작으로 제작한 이 연극은 인간 자유의지와 갈망, 소통에 대해 묻는 작품이다. 김태은, 최보희, 이기인씨 등이 출연한다. 무료 관람. 문의 062-670-7945.

같은 시간(오후 7시30분) 광주서구문화센터 2층 대공연장에서는 소나무(소중환 나눔이 있는 무대) 공연 '노래는 사랑을 싣고'가 열린다. 라현수 지휘자, 아시아아트심포니 오케스트라, 소프라노 손지현, 테너 서승환이 나선다. 보케리니의 현악5중주 '마드리드의 야간행군',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중 '나는 살고 싶어요' 등을 들려줄 예정이다. 입장료 1000원. 문의 062-654-4300.

'1930 양림살롱' 7월 행사는 '마을이 무대다'를 주제로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열린다. 오후 7시 카페 파우제에서는 장유정 교수가 참여해 '대중가요로 본 근대의 풍경' 특강과 함께 근대가요 다시부르기 미니콘서트가 열린다. 호랑가시미술관에서는

오후 5시부터 밤 10까지 '광주, 1930, 양림' 전시가 이어지고 곳곳에서 연극 '1930모던걸다이어리', 쌀 통콘서트 등이 펼쳐진다. 문의 070-4239-5040.

오후 8시까지 연장 개관하는 광주시립미술관에서는 오후 3시부터 한국화가들과 함께하는 부채그림 그리기 체험이 진행된다.

'부채-바람소리'전과 연계한 이번 프로그램은 장유림, 이창훈, 이은영 작가가 함께한다. 시민 150명을 대상으로 하며, 이날 그린 작품은 작가 작품과 함께 전시된다. 또 오후 5시부터는 아시아 민중·인권·평화전 '진실-비틀어보기' 작품 설명회가 이어진다. 문의 062-613-7142.

국립나주박물관은 오후 6시30분부터 국악콘서트 다담 '정봉남이 들려주는 동화이야기'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에는 순천 기적의 도서관 정봉남 관장이 출연해 동화이야기 '마음이 흐른 날엔 그림책을 펴세요!'를 들려주고 국악프로젝트그룹 'Re : 음'이 국악동요를 선보인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공연 시작 30분 전부터는 차와 다식을 즐길 수 있다. 문의 061-330-7804.

'세계조각·장식박물관'에서는 오후 6시부터 시 낭송 콘서트 '시·음악·연주와 함께하는 금남로 연가'가 열린다. 김정희 시인이 작곡한 '마랑, 그 푸른 사랑'을 낭송하는 등 시낭송과 함께 가곡 '얼굴' 공연(김미혜), 팬플룻 연주 등이 펼쳐진다. 문의 062-222-0072.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국립나주박물관이 매일 진행하고 있는 '다담' 국악콘서트.

<국립나주박물관 제공>

'1318의 창, 꿈을 디자인한다'

한국청소년영화제 8월 1~31일 작품 공모...청소년 심사위원도 모집

제18회 한국청소년영화제가 오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영상작품을 공모한다. 또 우수 작품을 선정할 청소년 심사위원단 40명도 모집한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사)매직청소년사회교육원(이사장 노성대)과 한국청소년영화제 조직위원회(위원장 조태수 국회의원)가 주관하는 영화제는 오는 9월 23일~25일까지 광천동 유·스퀘어 야외무대(개막식)와 G시네마에서 열린다.

한국청소년영화제는 국내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청소년 영화제로 지역을 넘어 전국대회로 자리잡았으며 앞으로 국제영화제도 모색하고 있다.

공모 부문은 단편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런타넨타넨 25분 이내) 등이며 2015년 9월 이후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작품이면 된다.

응모자격은 중·고등학생(대안학교 포함) 및 만 18세 이하 청소년(학교밖 청소년 포함)이며 여성가족부장관상(상금 150만원) 등이 수여된다.

청소년 심사위원단 지원자는 영화 창작·감상과 영상 문화 분야에 관심 높은 만 15~18세 남녀 청소년으로 워크숍(영상 제작 특강, 청소년심사단 스케치영상 제작 등), 광주권 문화탐방, 한국청소년영화제 분석 진출작 심사, 청소년심사위원단장 작품 선정 및 시상 등을 하며 교통비가 지급된다.

한국청소년영화제 홈페이지(www.한국청소년영화제.kr) 문의 062-368-804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일보 지사·지국 안내. A directory listing phone numbers for various regional offices across South Korea, including Gwangju, Jeonnam, Jeonbuk, Jeonju, and Jeonju.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An advertisement for exterior waterproofing services,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building facade and text describing the 'IPALG' system and contact information for 'IPALG'.